35괘 - 화지진 - 222121

전체 : 진晉의 길은 강후康侯가 하사받은 말로써 번성하게 하여서 하루 낮동안 세 번 접견을 받게 되었던 일과 같은 상이다.

1효 : 처음에 음이 오니, 진晉하는데 꺾이는구나. 정貞하면 길하리라. 신뢰받지 못하더라도 여유 있게 대하면 허물이 없으리라.

2효 : 음이 두 번째에 (또) 오니, 진晉하는데 근심하는구나. 정貞하면 길하리라. 그 왕모王母로부터 그윽하게 지켜주는 복을 받게 되리라.

3효 : 음이 세 번째에 (또) 오니, 무리가 믿음을 허락하리라. 회悔가 사라지리라

4효 : 양이 네 번째에 오니, 진晉하는데 석서처럼 정貞하니 위태롭구나.

5효 : 음이 다섯 번째에 오니, 회悔가 사라진다. 득실을 근심하지 말고 왕往하면 길하리라. 불리할 것이 없다.

6효 : 극상의 자리에 양이 오니, 그 뿔에까지 진晉하는 상이다. 오직 "예"함으로써 읍을 치면 위태로우나 길하며 허물이 없으리라. 정貞하면 (오히려) 인색한 결과가 되리라

전체 : 진은 어둠을 뚫고 해가 떠오르는 일출을 상징하는 괘이다. 어려움을 돌파하고, 이제 날아오르는 시점이다. 4효에서 군자가 과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고, 맡은 바 일을 꾸준히 하면 길한 점괘이다.

강후는 모반을 꾀하지 않고 맡은 바 일을 잘 하여 3공의 지위에 까지 간 사람이다.